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34과 신자들의 실천 신앙생활

[엡4:1-3]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겉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활로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신자들의 실천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들어보기로 하자.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 생명을 가지 증거이다.

[롬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 하나님께 헌신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

[롬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바치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산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이다.

[벤전1:21-25]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23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

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욕을 하지 않으셨고 복수하지 않으셨다. 결코 능력이나 힘으로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당신께서 상처를 받을지언정 남에게 상처주지 않는 삶을 사셨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친다.

2.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언어생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언어생활을 해야 한다.

[엡4:29,30]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한다.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엡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행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언어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벧전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12:36,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약3:2-6]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채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잠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3. 쉬지 않는 기도의 생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의 생명의 호흡이다. 기도 없는 삶은 호흡하지 않는 삶과 같다.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일 뿐이다.

[살전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눅18: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막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히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이었다.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엡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

[삼상12: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4. 기도의 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가르치셨다.

[마6: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꼭 하늘에게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도록 해야 한다.

[엡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요16:23,24]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친다.

[요14:13,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5. 찬양의 생활

성도는 구원받은 기쁨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은 마땅하다. 마음으로부터 찬양하고 입술로도 찬양해야 한다.

[히13: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69:30,3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31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롬15:11]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계19: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신구약성경에 찬송하라는 말씀이 200회가 넘게 나타난다. 또 찬양하라는 말이나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표현도 80회가 넘는다. 노래하라는 말씀까지 찾으면 그 수가 엄청 많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6.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생활할 때 영적 생명이 튼튼하여지고 풍성하여진다. 그러므로 날마다 연구하고 명상해야 한다.

[계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행17:11,12]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딤후3:14-17]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세히 읽어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온전하여지는 경지에 이른다.

[딤후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벧전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말씀이 예비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7.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연구하면 그릇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오직 성령의 지도로 연구해야 한다.

[요16:12,13]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전2:9-14]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사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28:1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짝들을 찾아 연구해야 한다. 오직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서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해 놓으셨다. 그것을 찾는 지혜를 성령이 주신다.

[창4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8. 예배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인 것처럼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느9: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계4:10,11]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가장 분명한 이유가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이다. 부모가 부모인 것은 자녀를 낳고 길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 것처럼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나도 창조하셨다. 그는 나를 존재하게 하셨으며 나를

자라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나는 전적으로 창조주의 창조력에 의하여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창조주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신앙이라 하고 신앙이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다. 여기 예배라는 말을 영어는 service라고 번역하였다. 봉사라는 말이다. 원어로는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이다. 역시 봉사, 섬김 등의 뜻이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삶이 봉사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섬기는 삶이 예배이다.

[계14: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배는 반드시 창조주께 해야 한다. 창조주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곧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다. 창조주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출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롬12:1의 예배와 계14:7과 요4:23,24의 예배는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 로마서는 봉사를 뜻하는 말이고 계시록과 요한복음의 예배는 경배를 뜻하는 말인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έω)”이다. 이 말은 경의를 나타내는 행동을 뜻한다. 그래서 땅에 엎드리거나, 신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경하며 절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배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식적인 예배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께 공경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봉사의 예배를 이룬 사람들이 안식일에 주님의 집에 모여 한 주일 동안 봉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공경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히10:23-25]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여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레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

[고전11:18,19]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19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전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에 모여 예배한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한 주일을 또 생활예배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로 이어지며, 그 생명의 호흡이 기도와 찬양인 것이다.

9. 전도하고 구제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뜻이다. 말로 전파하든지 생활로 증거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막16:15,16]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딤후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곧 증거의 삶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서나 일반 거래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요 예배의 생활이다.

[행20:35]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눅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슥3:12]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리스도인은 주려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나누어주고 재물도 나누어주고 사랑도 나누어주어야 한다. 특히 생활이 곤고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마6:3,4]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 성심을 다하여 구제 받는 사람이 부담 없이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봉사하는 생활

앞에 공부한 내용들이 다 봉사에 포함된다. 그러나 예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할 것을 말씀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종으로 두는 사람을 뜻한다.

[마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13:12-17]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막9:35]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눅22: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께서는 섬기는 자로 사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며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이다.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섬기는 생애였다. 말씀 봉사, 치료봉사, 전도봉사 등 모든 것이 이 세상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모든 봉사도 궁극적으로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섬긴다는 말은 종노릇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이 되어 오시되 종의 형체로 오셔서 평생을 섬김으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 하는 자가 된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을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갈5: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우리는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생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란다.